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14:6

박범서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예수를 믿는지 동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는데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면 치유되지 않을까?하는 동기를 가지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어떤 학생은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많이 도와주셨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하는 학생도 있다.

1. 우리가 시작할 때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우리의 신앙동기가 바뀌어야 한다. 이 동기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 출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실제로 체험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이 응답을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응답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나는 망하지 않는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야.’하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결국 성전도 무너트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다면 우리의 동기를 바꾸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사라진 사람들이 나온다. 예수님이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앓은뱅이를 일으키셨는데 그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 갔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죽을 일 없겠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나라를 책임져줄 것 같아.’ 이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졌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없어진 사람 가롯 유다, 중직자들 중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간에 사라진다.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빌립과 스테반의 이름은 나오지만 나머지 5명의 이름은 없어졌다.

2. 예수를 믿고자 하는 동기가 각자에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동기에 머무르지 말고 동기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는 무엇인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증인으로 응답 받아야겠다. 갈보리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장소이다.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대로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은 내 인생에 가정 문제, 경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실제 다 끝났다는 것이다. 문제가 아

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고,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나와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상이 있다.’ 이것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지고 내 삶의 이유로 붙잡기를 바란다. 내 인생의 이유를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 사람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이 발견되게 하실 줄을 믿는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알겠는데 힘이 없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그 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갈보리산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감사, 감격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된다.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3. 이 동기가 바뀌어진 사람을 절대 언약의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일곱 렘넌트와 같이 With, Immanuel, Oneness의 사람이다. With(위드)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Immanuel(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괜찮은 것이다. Oneness(원네스)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동기를 바꾸면 하나님이 일곱 렘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동기를 바꾼 사람들은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된다. 7 렘넌트, 11 사도들도 처음에는 오직 복음이 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되고 내가 이 분을 따라가면 나에게 무엇이랄도 떨어지지겠지.’ 우리의 시작은 누구나 이럴 수 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졌다. 내가 바꾼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들은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70 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그러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꾸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70 현장을 준비하셨다. 그 현장에서 70 제자를 세우고, 70 현장에서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진짜 바뀌려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본론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은 원죄 가운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절대 행복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이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며 그 속에 귀

신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무소부재, 무소부지 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려면 몸에 제한받지 않으셔야 한다.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이다. 그 분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2.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있고 우리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우리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만 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3.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성육신이라고 한다.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 가운데 붙잡혔다. 이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 사탄을 이길만한 권세를 가진 왕적인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이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는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사탄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가게 된다. 함께 영접기도를 드리겠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모든 마귀를 쫓아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가 누릴 수 있다.

(1)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 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나를 성화시키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2)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강단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예배시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제일 와 닿았던 말씀, 붙잡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고 붙잡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3)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나의 불신앙, 나의 체질이 있다. 나를 계속해서 무너트리는 부분과 습관적인 부분과 마귀의 틈이 있는데 이것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영적싸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4)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인다.

(5) 우리는 놓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약속을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나 자신, 세상,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6)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7)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다윗이 빛이 났던 이유는 사울과 같은 이상한 사람이 붙으니까 빛이 나는 것이다.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내게 되기를 바란다.

(8) 요한복음 14장 6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문제, 사탄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밖에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여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동기가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것이다. 이전에는 불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동기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한 것이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준귀케 됨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는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이 있다.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전달해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동기와 고백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지고 고백이 바뀌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응답 받게 하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